포교사단, 선거제도 개편된다

사단 · 부단장 5명 사퇴, 직무대행 체제 변경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조계종 포교사단장 선출방식을 둔 갈등으로 포교사단 단장과 부단장 등이 일괄사퇴했다. 직무대행 체제로 진행된 대의원총회서 포교사단은 7월 임시총회에서 사단장 선거규정 개정 등을 논의키로 했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3월 10일 서울 동국대 중강당에서 '2019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450명 가운데 위임 포함 364명이 참석했다. 하지만 이날 총회는 포교사단장과 부단장 등이 불참했고, 총회 30분 전 열린 긴급 운영위원회에서 선출된 직무대행이 의장을 맡아 진행됐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올해 10월경 진행 예정인 제11대 조계종 포교사단장 선출을 두고 제도개선TF를 구성해 선출방식을 논의해왔다. 이번 집행부 일괄 사퇴는 전문운영위원 등 선거권 제한에 대한 입장 차이로 인한 갈등 여파로 단장단 사표 제출에 포교원은 3월 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포교사단 지역단 간담회를 열고 중재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포교원과 지역단 등은 단장단 사표 반려 방침과 함께 7월 경 임시대의원총회를 통해 500여 명 수준의 대의원까지 포함한 확대 간선제를 추진하기로 입장이 모았다.

하지만 사표를 제출한 단장단은 사퇴 의사를 재차 밝혔고, 결국 포교원은 3월 8일 사표를 수리했다. 한성웅 전 수석부단장은 이번 사퇴에 대해 "한계를 느꼈다"고 토로했다.

제11대 사단장 선거권 범위
논의과정 갈등, 단장단 사퇴
3월 8일 포교원 사표 수리

10일 총회 앞두고 직무대행
보궐선거 통해 새 사단장 선출
7월 임시총회서 규정 개정추진

포교사의날과 대의원총회를 앞두고 발생한 집행부 공석 사태에 포교사단은 3월 10일 1시 경 포교사단 사무실에서 긴급운영위원회 회의를 열고 방창덕 대구지역단 단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출했다.


조계종 포교사단은 3월 10일 직무대행 체제로 대의원총회를 개최했다. 사진 앞열 오른쪽 첫번째가 직무대행으로 선출된 방창덕 대구지역단장이다.

방창덕 사단장 직무대행은 "짧은 기간이지만 협의체 구성 등 소통을 근간으로 직무대행직을 수행하겠다"며 "포교사단이 원숙한 단체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방 직무대행은 7월 대의원 총회 전 진행될 10대 단장 보궐선거까지 단장직을 수행한다.

방 직무대행은 대의원 총회에서 "7월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전문위원 선거권 제한과 지역단 선거권 확대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대의원총회서 포교사단은 제도개선 TF회의와 지난 1월 26일 제1차 운영위원회 결의에 따른 단장 선거 관련 정관 수정을 결의했다.

기존 운영위원회는 단장 · 수석부단장 · 지역단장 · 전문운영위원 등으로 구성된 임원과 각 지역단 부단장, 포교사단 설립 법인 대표와 산하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됐지만 수정에 따라 포교사단이 설립한 사단법인 좋은인연 대표와 산하단체 무소유실천운동본부 대표가 삭제됐다.

이성학 포교사단 사무국장은 "현행 사단장이 당연직으로 법인과 산하단체 대표를 맡고 있지만 공공영역에 해당하는 만큼 대표가 달라질 경우 상위기관인 포교사단에 과도한 권한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어, 선거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그동안 운영위 3분의 1이상 추천과 복수추천 조항으로 단독 혹은 2인 후보 경합이었던 사단장 후보 추천도 복수추천이 가능하도록 변경했으며, 3인 이상 복수후보 출마 후 과반수 이하 득표시에는 1, 2위의 결선투표를 진행하도록 했다.

또 단일후보시 운영위원 재적 절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하도록 조정됐다.

호미든관음성상 60년 법요식, 세미나 열린다

봉화 정토원 4월 5일 개최

봉화산 정토원(원장 선진규)은 4월 5일 오전 10시 봉화산 정상에서 '호미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봉축 평화기원 법요식'을 봉행한다.

'호미든 관음성상'은 1959년 4월 5일 동국대 불교학도 31명이 새불교 · 농민운동의 이상과 실천의지를 담아 조성했다.

당시 심신, 사회, 경제, 사상의 4대 개발을 목표로 민족 생존도구인 호미를 든 관음성상을 통해 불교가 생산활동과 농촌 계몽운동을 펼치자고 주창했다.

이날 봉축 평화기원 법요식과 함께 오전 11시에는 봉화 정토원 수광전 앞뜰에서 '평화통일 기원탑'과 '노인 · 청소년 문화체험공원' 조성발원 설명회 등도 열린다.

이에 앞서 봉화 정토원은 동국대 세계불교연구소 주최로 3월 30일 호미든 관음성상 봉안 60주년 기념 학술세미나를 동국대 만해관에서 개최한다.

선진규 봉화산정토원 원장은 "많은 분들이 동참해 호미든 관음성상처럼 자기 안의 욕심,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잡초를 빼내고, 보리심(진리)을 심어, 불과(성불)라는 열매를 맺는 초석을 마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덕현 기자

국제포교사회 기초불교영어강좌 진행

불교를 영어로 배우고 싶은 이들을 위한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기초불교영어강좌가 4월 6일 시작된다.

국제포교사회는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제52기에 이어 제53기 기초불교영어강좌를 4월 6일부터 6월 15일까지 10주 동안 조계종 전법회관 선운당에서 진행한다.

국제포교사회 기초불교영어강좌는 2006년 개설된 이후 조계종 교육원 인증 교육과정으로 자리잡고 있다. 기초불교영어강좌는 부처님의 생애와 가르침, 불교 역사와 불교 용어, 불교 예절과 불교 의식, 한국의 불교 건축에 관한 강의 등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국제포교사회는 제90차 월례법회를 3월 16일 조계사 극락전 2층 대설법전에서 개최했다. 이날 국제포교사회는 도경 스님의 '소통이 삶이다' 주제 강연을 듣고 토론을 진행했다.

노덕현 기자

조계종복지재단 24주년…"사회 밝히는 등불"

3월 8일 기념법회서 공로자 시상 · 신규시설 소개

창립 24주년을 맞은 조계종복지재단이 사회에 공감과 감동을 주는 불교복지를 위해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사장 원행)은 3월 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지하 2층 전통문화예술공연장서 재단 창립 24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재단은 행사를 통해 불교복지인들이 자긍심을 갖고 사회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계종 총무부장 금곡 스님, 시설협의회 회장 법일 스님, 복지특보 화평 스님 등을 비롯해 재단 산하 복지시설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했다.

재단 상임이사 보인 스님은 "불교가 복지 분야에 진출한 초창기부터 오늘날 지금의 반석에 오기까지 여기 계신 분들과 선배들의 많은 땀과 노력이 있었다.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전한다"며 "복지시설 시설장 스님 및 재가자, 임직원, 자원봉사자, 후원자분들 모두 재단의 생일 같은 뜻 깊은 오늘을 기점으로 더욱 소통 · 화합해 혁신으로 나아가자"고 말했다.

재단은 정년퇴임을 앞둔 공로자 1명 및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불교복지인 3명에게 공로패를 수여했다. 공로자는 황진우 자양종합사회복지관 관장, 장기근속자는 김휘연 금오종합사회복지관 부관장, 김현조 해나라어린이집 원장, 김용환 풍기어린이집 관리인이 선정 · 시상됐다.

이어 2018년 새로 개원한 사회복지시설 및 시설장을 소개하는 순서도 마련됐다. 신규시설은 6곳으로 △구례군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센터(센터장 도운) △강화군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센터(센터장 김정호) △가람슬기어린이집



재단 창립 24주년 기념법회에 참석한 내빈들이 기념떡 나눔식을 하고 있다.

(원장 임아화) △성수1가2동 노인복지센터(센터장 박필선) △양주시 회천노인복지관(관장 주민정) △울산북구 건강가정다문화가정 지원센터(센터장 이영숙)가 소개됐다.

해외 일정상 불참한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금곡 스님이 대독한 치사를 통해 "자신을 낮추는 하심(下心)의 마음, 지혜, 자비로 부처님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는 여러분이 사회의 어둠을 밝히는 자비의 등불"이라며 "모든 존재는 불성을 가진 평등한 존재임을 잊지 않고 무재칠시(無財七施)를 실천하는 마음으로 정진해 세상에 공감과 감동을 주는 불교복지를 실현하는 일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격려했다.

김지원 기자

제9회 한미청소년 불교문화 연수 접수

사찰 청소년 법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과 불교기관 종무원 자녀들이 세계 문화와 미국 내 한국불교를 체험하기 위해 연수를 떠난다.

국제전법단(단장 계성)은 한국불교 국제네트워크 주관으로 8월 2일부터 8월 13일까지 미국 동부 도시 뉴욕, 맨해튼, 워싱턴, 보스턴 등지에서 청소년들의 불교문화연수 활동을 진행한다.

이번 문화연수에서는 학생들에게 진로 탐색의 기회를 주기 위해 동부지역의 하버드대, 프린스턴대학 등을 사찰 출신 재학생의 안내로 직접 학교를 탐방한다.

또한 자유의 여신상, 맨해튼 투어, 월가를 비롯한 경제 특별 지역을 방문해 선진국의 문명과 함께 자유 경제의 현실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특히 뉴욕 불광선원에서 3박 4일간 현지 청소년들과 템플스테이를 진행할 예정이다. (070)7769-8985

노덕현 기자

